

與 “27일 공수처법 개정 착수” 최후통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법사위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상실 특검… 기소권 없는 공수처, 견제 기능 상실” 국민의힘 ‘라·스 사태 특검 도입·공수처법 개정’ 요구 일축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을 연계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공수처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안은 검찰 견제 장치로서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검찰은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드는 일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 왜곡이 이제라도 정상화돼야 한다. 그래서 공수처가 더욱 필요하겠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일정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완수하겠다. 야당은 공수처 출

법을 지체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26일까지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수처와 특검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민주당의 인내와 선의에 조건 걸기로 화답하는 도돌이표 정당에 유감”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정략적 조건 걸기와 시간 끌기를 멈추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지 말지 입장을 명료하게 밝히길 바란다. 26일이 지나면 법 개정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라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를 통해 충분히

진상을 밝힐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공수처 발족과 특검을 동시 처리하자는 제안은 공수처라는 ‘새 집’을 비워두고 특검이라는 ‘현 집’에 들어가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안정성이 부족한 특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공수처”라며 “상설적 특검 기구”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왜 검찰개혁과 공수처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금융사기 사건에서 더는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데드라인’ 26일까지 공수처 추천위원 2명을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으면 즉각 법 개정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국민 무시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26일까지 행동이 없다면 27일에 바로 법안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짚스’일 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안은 ‘빌 공(空) 자를 쓴 공수처로, 공수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일방 독주라는 의앙을 만들기 위한 짚스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국민의힘 개정안은 문제점이 많아서 받을 수 없다”며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안은 검찰 견제 장치로서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추미애 장관 “대검이 국민 기망”

“라임 조사, 야권 정치인·검사 항응 진술은 보고 안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대검이 국민을 기망했다”고 비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였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김봉현이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 달 사이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항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공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끈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앞둔 물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금태섭 탈당’ 엇갈린 시선

이낙연 대표 “아쉬워”… 정청래 “차라리 잘된 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1일 금태섭 전 의원이 전격 탈당의 의사를 밝히자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 전 의원의 탈당에 관한 질문은 “아쉬운 일”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금 전 의원이 정계 재심철자 지연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충고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일단 떠나신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금 전 의원과 함께 비주류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은 “탈당으로 마지막 충정을 보여주겠다는 말도 이해는 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냈고, 김해영 전 최

고위원도 통화에서 “당에서 더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조국 사태’와 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금 전 의원과 갈등을 빚었던 친문(친문재인)계 사이에서는 “차라리 잘된 일”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타깝지만 본인을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나 잘된 일”이라고 썼다. 그는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더 땡기겠지만, 한때 한술 밥을 먹었던 철수형(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이 외롭다. 이럴 때 힘을 보태주는 것”이라고 비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의도 브리핑

이용빈 “우정사업본부 발주사업에 중소기업 차별”

우정사업본부가 250억원대의 대규모 발주 사업에 대기업을 참여시키려다 실패하자 사업 자체를 크게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산갑) 국회의원은 21일 “우정사업본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총 158억원이 투입되는 ‘우편물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업은 발주과정에서 사업 예산과 내용이 크게 축소·변경된 것이다. 애초 이 사업은 ‘우편물류시스템 개

발 및 유지관리사업’이었지만 ‘개발’에서 ‘운영’으로 그 내용이 바뀌었고, 사업비도 256억원에서 158억원으로 무려 98억원이 감소했다.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용빈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 물류 인프라 사업에 중소·중견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철현 “여수박람회장, 해양관광 메카로 만들어야”

여수관광항만공사가 여수항 개항 100주년을 맞아 여수항과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남해안 거점 해양관광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21일 “2011년 여수관광항만공사가 출범한 이후 매출액을 파악한 결과 광양항에서 5663억원, 옛 삼일항에서 2736억원, 여수항에서 154억원을 벌였다. 행정구역이 여수시인 옛 삼일항과 여수항의 매출액은 여수관광항만공사 총 매출액의 34%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간에 여수관광항만공사에서 관리하는 항구에 대한 주요 투자사업 중 구삼일항과 여수항에만 투자한 금액은 204억원 정도로 전체 주요 투자사업의 9%밖에 되지 않는다. 주철현 의원은 “광양 컨테이너 터미널 중심 투자에서 이제는 여수관광항 전체를 보고 투자를 할 때 지역적 안배를 해야 한다”고 투자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희재 “최근 5년간 공항 보안검색 실패 17건”

공항 보안 검색을 뚫고 실탄과 공포탄 등을 반입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을) 국회의원은 21일 “최근 5년간 보안검색 실패에 따른 위험 물품의 기내반입 현황에 따르면, 공항 보안검색 실패는 총 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별로는 청주공항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천공항 4건, 김포공항 3건, 울산-대구·제주 1건 순이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 1건, 2016

년 7건, 2018년 2건, 2019년에 4건으로 증가하더니 올해에도 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실탄 2건, 공포탄 1건, 칼 7건, 전자 총격기 1건이 보안검색에서 적발되지 않아 기내에 반입됐으며, 이외에도 신분확인 미흡으로 타인이 탑승한 것이 2건, 허가되지 않은 인원이 보호구역에 진입한 사례가 1건이 발생했다.



소병철 “마스크 유통 범죄 477건, 기소는 절반 안돼”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대란’을 겪어야 했던 올 한 해 동안 매점매석, 판매사기 등 마스크 유통 관련 범죄 477건이 접수됐지만 기소율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21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2020년 9월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스크 매점매석이 총 116건, 마스크 판매사기가 총 361건이 입건되었으나 기소율은 각각 35.3%, 48.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위반사범들의 전체평균 기소율인

58.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코로나19 위반사범 중에서는 ‘격려거부 등’이 42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37.4%)을 차지했으며 기소율 역시 80.2%로 가장 높았다. 소 의원은 “연제는 마스크 대란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위기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엄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